

# 곤, 회견 앞두고 日수사 당국과 장외 공방

### 곤 "日 기본 인권 무시... 쿠데타 증거 있다" 주장... 폭로전 예고 日 검찰, 부인 체포영장 이례적 공개... 외무성은 피의사실 설명

형사 재판을 앞두고 레바논으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과 일본 수사 당국의 장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 중에 부당한 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주장한 곤 전 회장이 8일 레바논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가운데 일본 정부와 검찰은 곤 전 회장 측의 불법성을 부각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곤 전 회장을 수사해 기소한 도쿄지검 특수부는 그의 부인 케릴 곤에 대해 위증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전날 발표했다.

케릴은 작년 4월 곤 전 회장의 특별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았는데 그때 닛산의 자금 흐름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만 판매대리점의 인도인 간부와의 관계에 대해 허위 증언했다고 도쿄지검은 의심하고 있다.

도쿄지검은 케릴이 곤 전 회장 체포 후에 이 인도인 간부를 "만났는지 어떤지 기억이 안 난다", "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있었는지 어떤지 기억이 없다"는 등의 허위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8일 이런 내용의 발표를 전하며 도쿄지검 특수부가 "공판 전에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도 도쿄지검이 케릴에 대해 위증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일본 법무성의 통지 내용을 일본 주재 외신 기자들에게 영문으로 배포하는 등 평소와

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케릴은 곤과 마찬가지로 레바논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도쿄지검이 그를 체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쿠보 다케시(大久保武) 레바논 주재 일본 대사는 전날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만나 곤 전 회장의 도주에 관해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당국이 신병 확보 가능성이 불투명한 케릴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피의사실까지 공표한 것은 장외 공방을 염두에 두고 곤 전 회장 측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검찰은 곤 전 회장이 아내와의 면회를 허용하지 않은 보석 조건 등을 비판한 것에 맞서 케릴 역시 피의자라는 점을

명확하게 할 의도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을 수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곤 전 회장은 한국시간 8일 오후 10시 레바논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회견에는 곤 전 회장이 직접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것이라고 그의 법률 대리인이 설명했다.

그간 곤 전 회장이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회견은 일본 측을 공격하는 폭로의 장이 될 전망이다.

그는 탈출 직후 일본의 사법 제도가 '유죄를 전제로 하며 기본적인 인권을 부정한다'고 비판했으며 미국 매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일련의 수사가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한 쿠데타였다는 물적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닛산자동차는 곤 전 회장이 도주한 것에 관해 "일본의 사법제도를 무시한 행위로 매우 유감"이라는 성명을 7일 발표했다.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홍콩 코즈웨이베이 지구에서 민주화 행진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수천명의 시민들이 빅토리아 공원에 모였다. /연합뉴스

## 홍콩, 24년 만에 '춘제 퍼레이드' 취소

### 시위 우려로 진행 않기로

### 관광객 급감에 명품매장 철수

지난해 6월 초 시작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새해 들어서까지 이어지면서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춘제(春節·중국의 설) 퍼레이드가 24년 만에 취소됐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관광청은 매년 음력설 연휴 기간에 홍콩 최대 관광지인 첩사추이 지역에서 개최하던 춘제 야간 퍼레이드를 올해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웨스트카오롱 문화지구에서 세계 26개 팀이 참가하는 카니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6년 시작된 후 매년 열리던 춘제 퍼레이드가 취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홍콩 관광청은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실은 대규모 시위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홍콩 시위가 장기화하는 데다 대형 행

사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홍콩을 찾는 관광객도 급감하고 있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12월 31일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불꽃놀이 축제는 인파가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경우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의 반대로 인해 취소됐다.

홍콩의 새해맞이 불꽃놀이 축제가 취소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러한 영향 등으로 지난해 11월 홍콩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265만 명을 기록해 전년 같은 달에 비해 56% 급감했다.

이는 2003년 4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대유행 이후 16년 만에 최악의 관광객 감소율이다.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홍콩 도심의 명품 브랜드 매장도 철수하거나 신규 개장을 연기하고 있다.

현재 홍콩 내에서 8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모회사 LVMH는 매출 감소 등에 따라 코즈웨이 베이 지역에 있는 타임스퀘어 쇼핑몰 내 매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뉴욕 법정 도착한 와인스틴 성폭행 혐의 관련 재판을 받는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가운데)이 배심원 선정 첫 날인 7일(현지시간)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변호사 도나 로튼보(왼쪽)와 미국 뉴욕 법정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 美 보란 듯... 中, 국영기업 개혁 대신 '당의 지배' 강화

### 중요 결정 당 논의의 명문화

미국이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국영기업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되레 당의 국영기업 지배를 강화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공산당 지도부인 중앙위원회는 국영기업 내 당 조직 결성을 의무화하고, 당 조직이 국영기업 경영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규정한 문건을 작성해 발행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모든 국영기업은 회사 정관에 당 조직 결성을 명시해야 하며, 3명 이상의 당원을 고용한 국영기업은 반드시 당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나아가 경영상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이사회나 경영진에 회부되기 전에 당 조직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당 서기와 이사회 의장은 동일 인물이 맡아야 하며, 주요 경영진 내에는 당 부서기가 포함돼야 한다. 또한, 이사회에는 경영상 역할을 맡지 않고 '당 조직 건설'에만 책임을 지는 특별 부서기가 포함돼야 한다.

경영진이나 이사회 구성원 중 당원인 사람은 '당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을 최우선 임무로 삼아야 한다.

당 중앙위원회가 이처럼 국영기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영도를 명문화한 문건을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 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후 중국 공산당은 겉으로는 이사회 권한 강화 등 국영기업 지배구조의 현대화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국영기업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대한 당의 지배를 강화해왔다. /연합뉴스

## 180명 태운 우크라이나 여객기 테헤란 부근 추락

### 탑승객 전원 사망한 듯

8일(현지시간) 오전 우크라이나항공(UUA) 보잉 737 여객기가 이란 테헤란 이맘호메이니 국제공항을 이륙한 직후 추락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AP통신과 블룸버그통신, AFP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키예프 보리스필 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던 이 여객기에는 승객 180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란 파르스통신은 기체 결함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란 당국은 사고 현장에 조사팀을 급

파해 사고 원인과 피해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란 항공청 레자 자파르자데 대변인은 "여객기가 이륙한 직후 파란드와 샤리아 사이에서 떨어졌다"며 "뉴스가 나온 직후 현장에 조사팀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락한 우크라이나항공의 기종은 최근 몇년 간 잇따라 참사를 빚은 보잉 737 맥스'가 아닌, '737-800' 기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제조한 '737 맥스'는 앞서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잇따라 추락, 승객과 승무원 346명이 숨지는 참사를 초래했다. /연합뉴스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